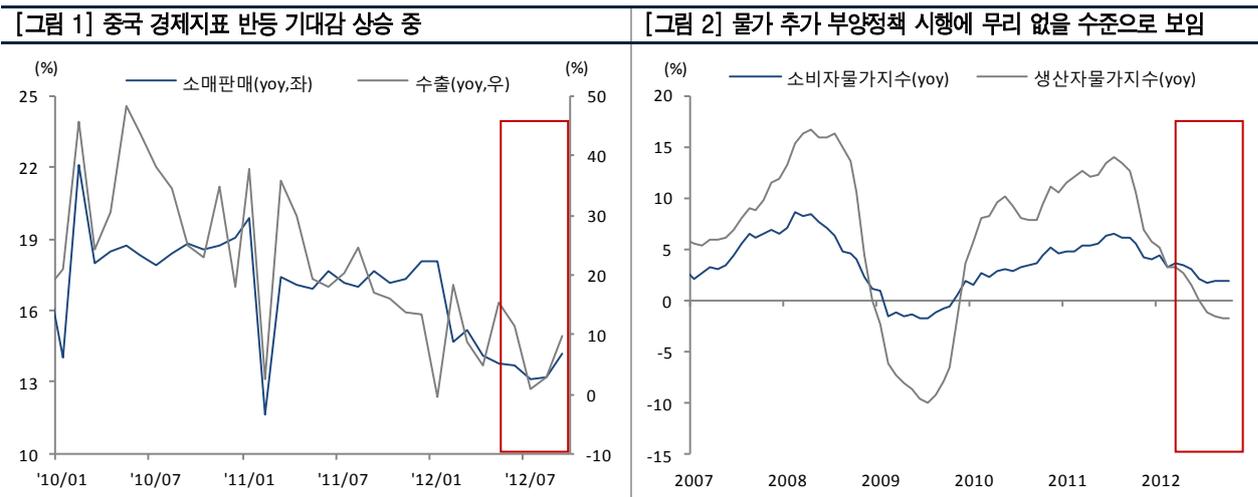


중국 시장 접근 방법은?

지난 7 주 동안 글로벌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 지속되면서 신흥국 시장의 매력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지난 주(2012.10.24 기준) 중국 주식형 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유입된 자금의 약 43%를 차지했던 점 확인. 중국 주식시장 자금 유입 원인과 향후 접근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는 중국 경제지표의 긍정적인 흐름과 정권교체 이후 정부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 증가가 있어 보임. 10 월 발표된 9 월 중국 경제지표 그동안의 부진했던 흐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9 월 수출 9.9%(yoy) 기록하며 3 개월 연속 확장되었으며, 9 월 소매판매 14.2%(yoy)의 경우에도 3 개월 연속 증가세 모습 확인. 제조업 PMI 의 경우, 9 월 결과치 49.8 로 발표. 아직 50 을 하회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8 월(49.2)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10 월 전망치는 50.3 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일 것으로 기대(2012.11.01 발표 예정). 최근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생산자 물가 지수(yoy) 지난 3 월부터 마이너스 수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도 2% 안팎 유지하고 있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정권교체 후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에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상품마케팅본부

현재 중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글로벌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중국 시장의 PER 약 9.2 배로 글로벌 이머징 시장의 약 10.2 배 대비 낮은 수준 보이고 있음(MSCI 중국, 이머징 기준). 또한, 과거 경험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에도 중국의 밸류에이션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 MSCI 중국 최근 5 년 PER 약 11.8 배인데 비해, 현재는 약 9.2 배로 약 78%에 그치는 수준. MSCI 홍콩 시장의 경우에도, 과거 5 년 평균 PER 약 15.3 배에 비해 현재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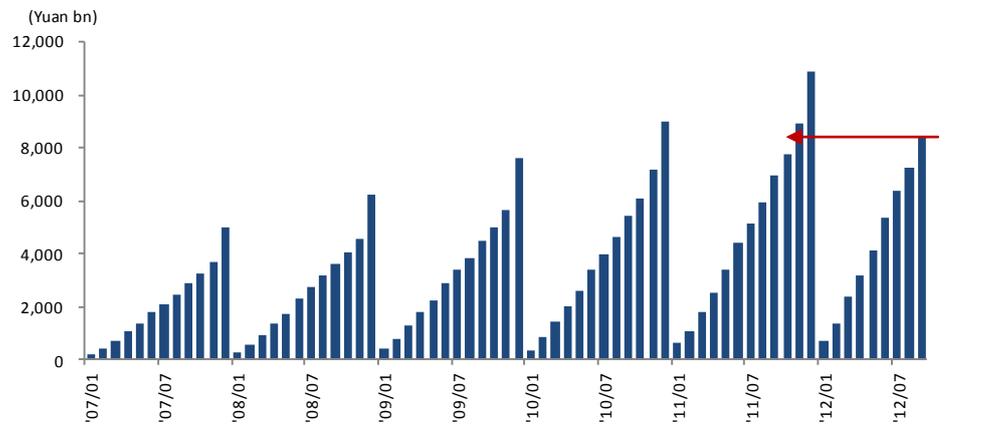
95% 수준인 약 14.6 배 기록하고 있음. 과거 대비 눈에 띄게 낮은 중국, 홍콩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정상화 되는 과정만 거치더라도 약 5~10%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임



자료: DataStream, 미래에셋증권 상품마케팅본부

그러나 여전히 중국 내 정치적 변동성 요인이 남아 있다는 점 염두, 중국 시장은 장기적인 시각의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임. 중국 내 11 월 8 일 중국 공산당 18 차 전국대표대회를 시작으로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정치적 변동성은 내년 3 월 중국 양회의 국가주석취임까지 지속될 가능성. 중국 시장이 정치적 이슈로 큰 폭 하락할 가능성 낮아 보이지만, 경기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 되더라도 주석취임 시기까지 빠른 정책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중국 정부의 지출 수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추가 부양 정책 나오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인 점 확인. 올해 9 월까지 중국 정부의 지출 이미 지난 해 11 월까지의 수준에 근접. 올 해 안에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정책을 제시할 가능성 낮을 수 있음

[그림 5] 올해 9월까지 중국 정부지출 이미 지난 해 11월 수준에 가까워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상품마케팅본부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하여 미래에셋증권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상품마케팅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미래에셋증권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지원